

그 많던 反美는 정말 사라졌을까

광화문·부

김 신 영

국제부장



루마니아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적나라한 친(親)트럼프 노선을 내건 후보가 18일 역전패를 당했다. 최근 있었던 캐나다·호주 선거도 일방적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유권자 반감이 표출돼 트럼프에게 대항하겠다고 한 후보들이 당선됐다. 우방에까지 관세를 막무가내로 올리는 트럼프의 최근 행태에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발한 2008년 ‘광우병 시위’ 당시 저녁 먹으려 갔다가 인파에 떠밀려 회사에 돌아오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그만큼 거친 반미 시위였다. 광우병 공포는 결국 비과학적이었다고 판명이 났지만, 격렬한 반미 정서에 놀란 미 정부는(광우병 감염 우려가 거의 없는)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출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요즘 이 소고기 수입 제한을 풀라고 공격하고 있다. 한국 무역 협상의 성역(聖域)으로 여겨져온 쌀까지 ‘문을 열라’고 압박 중이다. 한국은 의외로 조용하다. 이쯤 되면 슬슬 고개를 들었어야 할 반미(反美)가 안 보인다.

과거 여러 차례 적나라한 반미 감정을 드러냈던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미국과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8일 토론회에선 과거 반미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적 답을 했다. 그는 불과 3년 전 사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미국에서 무기 사들일 필요 없이 자체 기술로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책에 썼다. 성남시장 때인 2017년엔 “미국 철수를 각오하고 사드를 철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틈만 나면 주한 미군 병력을 줄이겠다고 하는 트럼프가 솔깃할 얘기인데, 이 후보는 미국에 유화적 발언을 하면서도 과거 입장을 철회하거나 후회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 후보는 18일 토론회에서 미·중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 원칙 “국익에 따라 실용적으로” 미·중 선택 압박 받는다면? 답하지 못할 이유 없지 않나

나는 질문을 받고 “(외교·안보는)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중·러 모두와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뚝뚝이 말했다. 이른바 ‘황희 정중식 외교’로, 미국과 중국이 역사상 가장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지금 같은 때엔 현실적인 계획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국 미·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곧 닥치리라고 예상한다. 이 후보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 속을 알 수가 없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선 미국과의 협

력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 이 후보의 최근 발언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캠페인 때 한 말이다. 문 전 대통령은 당선 후 결국 반미 정서가 강력한 집단인, 당내 ‘86세대’의 뜻대로 움직였다. 미국의 어떤 정권도 원치 않는 북핵 관련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 미 정계에서 반발이 일었고, 미군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추진했다. 한미 연합 훈련은 축소·중단됐다. 유세 때 말한 ‘국익’과 ‘균형’은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정당화하는 단어로 용도가 바뀌었다. 문 정권의 핵심 인사 중 다수가 지금 이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반미 감정 확산에 불만이 컸던 노널드 럼즈펠드 국방 장관은 2004년 한국에 있는 여단 중 하나를 이라크에 보냈다.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의 당국자들은 이미 주한 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가 아닌 ‘중국 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략을 바꾸고 있다. 중국·대만 충돌 시 주한 미군을 빼서 중국 저지에 쓰겠다는 얘기도. 주한 미군의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중 일부는 예멘과 싸우는 중동으로 벌써 보냈다. 다음 정권이 반미의 기적만 보여도 트럼프는 기꺼이 주한 미군을 줄일 것이다. 이 와중에 북한은 행방이 된 러시아로부터 무기와 전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있다. ‘국익에 따라 실용적으로’를 넘어서는, 이재명 후보의 보다 명확한 입장이 궁금한 이유다.



작자 미상, ‘에버딘 베스티어리’ 중 ‘벌’에 대해서. 12세기 후반. 약 30.5×21cm. 양피지에 금박 및 안료. 영국 에버딘 대학교 도서관 소장.

벌의 개체 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 선한 왕과 성실한 백성도 무차별 살포하는 농약과 급격한 기후변화에는 속수무책이다. 전 세계 주요 식량 식물의 약 70%가 벌의 수분(受粉)에 의존해 성장한다고 한다. 그러니 벌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텅 빈 꿀통만이 아니라 텅 빈 식탁이다.

포스트백 교수·서양미술사

社 説

연임·중임제, 대통령제 문제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 개헌 공약을 내놔다. 연임이든, 중임이든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최대 8년까지로 하자는 것이다.

지금 개헌 요구가 분출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폐해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제 폐해의 핵심은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양쪽이 충돌할 경우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상 제도적 문제이기도 하고 타협과 절충을 모르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우리 정치 풍토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인 문제에 대한 주변의 고언을 무시하다니 끝내 정권 위기를 부른 대통령과 그의 느닷없는 계엄 폭주, 당대표 방탄을 위한 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가 완충 지대 없이 충돌한 것이 개헌 요구를 부른 직접적 원인이다. 개헌의 요체는 대통령 임기가 아니라 권력의 분산에 맞춰져야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중임제 그 자체로는 승자 독식과 무한 정쟁의 극복과는 관련이 없고 도리어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연임·중임제가 도입되면 1기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은 재선일 수밖에 없다. 당 안팎의 정적 제거를 위한 공격, 무리한 선심 정책이 4년 내내 계속되고, 야당은 대통령 재선을 막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4년 내내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는 이

런 정쟁으로 국력을 소모할 여유가 없다. 만약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재임 다음 날부터 레임덕 얘기가 나올 것이다.

지금 우리의 헌법 위기는 대통령 임기가 잘못돼 생긴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폭주하고 야당이 폭주해 발생한 위기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아니라 국회가 선출한 총리는 지금과 같은 의전형 총리가 아니라 실질 권한을 행사하는 총리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 이것이 정쟁 완화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4년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면 그때의 우세 정당 이 대통령과 국회를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정 추진력 강화라는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한 정파의 권력 전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식으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중간선거 형식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연임제 또는 중임제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책임 정치와 정책 연속성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원조 격인 미국에서도 독재 우려와 선심성 정책 남발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특히 타협과 협상, 절충의 정치 문화가 없는 우리 정치 현실에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

李 면죄 추진하며 그 법으로 다른 사람 고발하다니

민주당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는 가슴을 찢다”고 쓴 것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16일 유세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가 120원이더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했다.

이 후보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없애려고 아예 관련 법 규정을 바꾸려 한다. 이 후보가 대장동과 백현동 문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대법원은 유

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유죄가 된 것과 같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아예 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을 바꾼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법이 개정되면 이 후보는 범죄가 아예 없어지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이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법을 고쳐서라도 없던 일로 만들려는 민주당이 다른 당 사람은 그 법을 이용해 고발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선 TV 토론에서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는 후보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 한 발언은 관철고 타인의 낙선을 위해 한 발언은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어떤 거짓말은 관철고 어떤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다.

尹 석방 판사에 대한 비상식적 협박

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유형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자신들의 의혹 제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라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 술집 내부 사진은 민주당이 최근 현장에서 찍은 것이고, 지 판사가 남성 2명과 찍은 사진도 있었다. 민주당은 동석자들에 대해 “법조 관계자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 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보면 적 없다”며 부인했다.

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였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 목적의 공격이 이렇게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톨살통에서 여러 번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톨살통 접대 증

거라며 사진을 공개했지만, 주 의원은 “선배 부부의 생일 파티 사진을 톨살통 접대도 왜곡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지 판사는 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아직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받고 어떤 접대를 받았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지 판사에 대한 공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의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재판 제제를 요구하려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석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무관한 문제로 판사를 뒷조사하고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으며 의혹을 제기해 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민주당이 비난하는 검찰의 별건 수사 방식과 뭐가 다른가.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을 추진했고 대법원장 특검 법도 상정했다. 재판의 독립을 원천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정치 폭력이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국힘 금배지-명망가들 11척, 눈치 보며 맴돌

이순신 탄 대장선만 혼자 돌진 앞으로

달랑 12척 뿐인데 한동훈, 과자 먹으며 라이브 방송 한덕수, 콧대도 보이지 않아 홍준표, 하와이서 유유자적



영화 《명량》의 한 장면. 이순신의 대장선 출로 일본 수군을 향해 돌진했다. 11척의 남은 배들은 겁에 질려 나아가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다. 국힘 금배지들과 한동훈-한덕수를 행태가 바로 그렇다.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람들은!

자유대한민국-자유 진영을 마지막으로 지킬 주역은 누구인가? 국민의힘? 국민의힘 금배지들? 국민의 힘 소위 명망가들? 자칭 거물급들? 치워라!

이 물음에 (이들이다)라고 불러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권영세-권성동의 《후보 바꿔치기》를 뒤엎어 버린 《국민의힘 평당원들》 같은 사람들이다.

이럴 줄 안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을 것!

이들이 이럴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들은 “우리가 내 세울 (김)은 이 사람”이라 정찍고선, 누가 뭐라든 (너희는 짓어라)며 그를 뽑아 올렸다.

합법적이고 순법(順法)적인, 그러면서도 단호한 《반항》이었다. 이거다! 이제 6.3 대선에서 자유인들이 가야 할 구국의 길이라!

왜 이런 《저변으로부터의 용솟음》을 소망하고 촉구하는가? 《국민의힘 / 국민의힘 금배지들 / 국민의힘 소위 명망가들》요즘 하는 것들이 너무 실망스럽고 경멸스러워 이른다.

전천후 출세주의자 & 입신양명론자

안철수 의원은 이런 투로 말했다. “대장선에 올라 탄 이순신만이 돌진했다.” 명량 해전 때 12척 남은 배와 장병들 가운데 오직 그와 그의 배만이 《돌격 앞으로》였다. 국민의힘 사정이 오죽했기에 안철수가 그렇게 한탄했을까?

이게 《비(非) 좌파 진영의 대표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의 ‘있는 그대로의 민낯’이다. 몇몇을 빼고는 그들은 이념도 사상도 철학도 원칙도 고민도 없는 《전천후 출세주의자 / 입신양명론자들》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들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치른다. 모범생이다. 정의감·규범의식은 별로다. 그때그때의 대세가 된다는 재빨리 간파한다. 좌파 세상이 오자 그들은 짹짜게 가판(街販)했다. “나도 보수-우파 아닌 중도 개혁이다” 어찌고.

선거 후 당권 노리기 & 나 몰라라 자빠지기

이게 국민의힘 《자칭 꽃밭들-거물(物)들》의 밑바탕이다. 이런 자들에게 좌익과 싸워달라, 바라고 믿은 순진파만 허무하게 되었다.

후보 경선 전후에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신 / 변신 / 떠남》을 / 선거 후 당권 노리기(한동훈) / 나 몰라라 자빠지기(한덕수-홍준표) / 적진으로 넘어가기》 막장극은 결국, 《영혼 없는 출세지상주의자들》의 저질(底質)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6.3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파위 《소인배-정사배 집단》은 없어져야 한다. 치솟는 역겨움을 누를 길 없어 던지는 논고(論告)다. 서부(西部)의 악당들과 홀로 싸우는 정의의 총잡이를 바라보며.

《고민하는 자유인들의 저변으로부터의 용솟음》만 이 마지막 희망의 보루다.

가자, 자유인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5월 18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56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